

북해도에서 온 러브레터

「후반기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KPM 북일본지부 가족들과 함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에베소서 1장 6절

김주환 · 홍성아 선교사 가정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북해도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더위 때문에 교회에 못오시는 분이 생길 정도로 연일 최고 온도를 갱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거의 에어컨이 없는 북해도에서 연일 34도 이상을 참아내며 지구온난화를 온몸으로 느낀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더웠던가?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스토브를 켜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에 날아다니는 눈벌레(흰색 날벌레로 눈처럼 생겼는데 이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면 북해도에는 그 다음 주 안으로 눈이 옵니다^^)를 보면서, 예전에 선교사 수련회에서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볼펜에 적혀 있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This too shall pass.(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Y 가족을 인도하심

지난 여름사역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은, 주님께서 Y가족을 교회로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오신 단기팀들과 함께 일 만장의 교회 전단지와 교회행사 안내지를 지역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만 장의 안내지 중 한 장이 Y씨 집에 들어갔고, Y가족이 그 안내지를 보고 CCC의 오픈 카페에 찾아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Y씨가 약15년쯤 전에 구원과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구원파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3년 전에 자녀의 문제로 고향인 레인보우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큰 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Y씨와 두 자녀들이 주일예배에 기쁨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Y씨는 기초 성경공부 과정을 마치고, 전입 성경공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Y씨는 나눔의 시간에 그동안 너무나 고독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야 와야 할 곳에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신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베츠 메구미교회 건축 모금(5천만엔 중 2천만엔 채워짐. 3천만엔이 모이면 공사 발주예정)

유베츠 메구미교회가 개척되고 7년이 지났습니다. 11월 말에 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마음까지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의 성전 건축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9월 건축 위원회에서 작성한 모금 안내지를 후원교회와 후원자님들에게, 그리고 일본동맹교단의 교회와 북해도의 여러 교회들에 발송하였습니다. 헌금을 부탁하는 일이 조심스럽지만, 놀랍게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로부터도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액수보다도 주님께서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귀하게 동참하는 분들을 붙여주고 계심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한 분들을 위한 묵회

일본의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에 약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는 그분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 볼 분들이 많아지면서 선교사도 인간인지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레인보우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치유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청년들이 회복되어 취직되게 하옵소서. 약한 분들을 돌보기 위해 돕는 손길들,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큰 용사로 거듭 났던 것처럼 레인보우교회의 약한 분들이 주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9월말에 청년회 주최로 교회주차장에서 바베큐를 했습니다. 목적은 여름사역을 통해 교회에 왔던 새신자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Y씨 가족 이외에는 새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을 받으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바베큐, 청년들 안에 좋은 교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낙농대학 남학생이 와서 자기도 참석해도 되겠냐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좋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며 여러가지 질문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순이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아침에 교회 벨이 울려 나가보니 70대의 한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부모가 기독교인이어서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갔었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죽을 때가 되어 장례식을 생각하니 불교에서 장례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다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에게 물론 장례식을 해 줄 수 있지만 먼저 예배에 와 보시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왔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가을 사역 보고와 기도제목

• 10월 9일 주일학교 데이캠프

현재 교회에 출석중인 총 1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바베큐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10월 13일 한글 교실로 만나게 될 H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OMF선교사님 친구로 레인보우교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 H 부인이 홍성아 선교사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해서 10월 13일부터 매 주 개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복음에 많이 열려있는 분인데 홍성아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현재 4팀의 한국어교실이 운영중입니다.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10월 17~19일 일본동맹기독교단 가을연수회

김주환 선교사가 참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각지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동맹교단의 일본 목사님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큰 격려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0월 24~30일 미국 갈보리 선교교회 단기선교**

총13명의 단기선교팀이 오셔서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본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교회의 기도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지역에 교회안내지를 배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름 단기선교에 이어 가을 단기선교에도 큰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 **10월 29일 유베츠메구미교회 봉사는 박영기 목사님 수술로 인해 연기됨. 크리스천 홈비전 세미나 실시**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박영기 선교사님(신삿포로성서교회)께서 10월 22일 주일에 심한 복통으로 구급차에 후송되셨는데 검사결과 담석이 발견되어 지난 주 수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담석 7개와 담낭을 제거하고 간장과도 유착이 되어 출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회복되시고 이전 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에 크리스천 홈비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박목사님을 대신하여 봉사를 하기 위해 유베츠 봉사는 연기되었습니다. 대신 크리스천 홈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바른 사랑과 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10월 30일 H 할아버지(재일교포) 장례식**

이 편지를 완성해서 보내려고 할 10월 27일 밤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심방하며 복음을 전해왔던 97세의 H 할아버지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생전 마지막 심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임종기도를 위해 찾아뵙고 월요일 오전에 고별식(발인예배)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조카되시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공동체 선교사님들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분의 구원을 위해서 97년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공화로 인하여 아무쪼록 구원받으셨기를 기도할 뿐입니다(시편 23편 6절).

• **11월 2-3일 선교구(노회) 가을성회**

북해도 교회사에 정통하신 혼다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구 성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11월 11일 공동체교회 유베츠 메구미 교회 건축 예정지 기도 여행**

내년 봄에는 건축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인데 재직들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성도들이 다시 한 번 함께 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제안이 나와서, 7개 공동체 교회가 함께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날씨를 주장하셔서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그 곳에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11월 17-18일 청년부 1박 캠프**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들이 흥미롭게도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11월 23일 공동체 교회 연합 수양회**

신삿포로 성서교회 공동체 7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을 계획중입니다. 올해가 저희 모교회인 신삿포로 성서교회의 설립 30주년인데, 30년동안 7개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안에서의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12월의 각종 크리스마스 행사**

매년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본교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도 시즌입니다. 어린이 크리스마스, 청년 크리스마스 등 일자를 달리해서 전도집회 형식으로 12월 한 달 동안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전도

행사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신 이유가 힘있게 일본 영혼들에게 선포되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3년 11월 2일
일본 북해도 에베츠시에서
김주환-홍성아 올림

기도해주세요

1. 구원자되시고 치유자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도록(렘17장14절)
2. 유베츠메구미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속히 채워져서 건축이 시작되도록(총 공사비 5천만엔 중 2천만엔 채워짐. 3천만엔이 모이면 공사 발주예정) 내년 봄 착공예정(8월의 특별기도편지 참조바랍니다).
3. 분쿄다이 레인보우 교회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4. 가을 사역과 겨울 사역을 통해서 지역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이 생기도록
5. 11월에 전입하시는 이수원-이상희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의 축복과 12월에 전입하시는 Y 자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6. 병원과 시설에 계시는 성도들과 구도자들, 코로나 기간 중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7. 11월부터 함께 동역하게 되는 OMF의 카리스 창(홍콩) 선교사와의 선교협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8. 김주환 선교사(아토피), 홍성아 선교사(편두통), 아들 유이(초6), 한국의 양가 부모님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현지주소) 〒069-0833 北海道江別市文京台14-26 文京台レインボー教会

(현지교회) 81-11-386-7750

(이메일) givinglove77@g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3-764 KPM김주환

• 첫 입금 시에만 KPM 세계선교위원회(042-622-7061~3)로 확인전화를 부탁드립니다.



CCC 수다 카페 사역



CCC 단기팀원들과 오타루에서



청년부 바베큐



H 할아버지 발인예배